



‘선두’ 호랑이 앞날 ‘꿀찌’ kt에 달렸다?



우천 취소 4경기 등 7경기 남아...상대전적 5승4패 대등
시즌 막판까지 선두 싸움 전개 뎀 피말리는 경기 될 듯

‘호랑이 군단’의 운명줄을 쫓아내 kt 위진다.
11일 kt 위즈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올 시즌 KIA의 8번째 우천취소, 이 중 4경기의 상대가 바로 kt다.
‘1위’ KIA와 ‘최하위’ kt의 유난한 올 시즌이다.
두 팀의 경기에 비가 쏟아지면서 수원에서의 세 경기 그리고 광주에서의 한 경기를 다시 잡아야 한다.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4번의 우천 취소 탓에 두 팀은 9경기밖에 치르지 못했다. KIA는 넥센과는 가장 많은 14경기를 소화했다.

경기 내용을 봐도 유난하다.
4월 12일 공동 1위로 막을 연 KIA의 선두 질주는 현재 진행형이다. 1위 타이틀을 놓지 않고 있지만 최하위 kt 앞에서는 진땀 좀 흘렸다.
올 시즌 kt전 전적은 5승 4패. 두 팀의 순위를 고려하면 KIA에는 속스러운 성적이다.
KIA는 4월 19일 수원 원정에서 1-3으로 지면서 6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5월 안방에서 진행된 리턴 매치에서는 무성 시리즈로 고개를 숙였다.
5월 10일 kt 피어밴드에게 10개의 탈삼진을 내주는 등 0-3으로 시즌 첫 영봉패를

당했다. 다음 날에도 2-4로 지면서 위닝 시리즈를 kt에 내주었다.
7월 7일 시작된 세 번째 시리즈는 비의 시리즈가 됐다.
잠실(LG)-문학-수원으로 이어진 원정 9연전길, KIA는 문학에서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는 등 불방망이를 안고 원정 9연전의 종착역이었던 수원으로 건너갔지만, 비가 내리면서 하루 쉬어야 했다. 비가 갠 8일 KIA는 20-8의 대승을 거두며 식지 않은 타격감을 자랑했지만, 다음날 경기도 우천 취소되면서 아쉽게 ‘메가타이거즈포’의 기세를 잊지 못했다.
그리고 두 팀의 시즌 8차전이 열린 지난 1

일에는 KIA의 하요일 13연승이 중단됐다. 정용운이 선발로 나섰다 이날 1회부터 8실점을 하면서 7-15라는 쓴 패배가 기록됐다. 2일에는 두 팀의 세 번째 우천취소 경기가 남았다.
최대한 빨리 1위를 확정하는 게 ‘호랑이 군단’의 바람이지만, 뒤에 버티고 있는 2위 NC 다이노스와 3위 두산 베어스의 저력이 만만치 않다.
최악의 경우 시즌 마지막까지 선두 싸움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은 7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kt가 KIA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일단 2연전의 두 번째 경기인 11일 승리부터 거두고 봐야 한다. 팻딘이 핵터에 앞서 마운드에 오른다.
KIA는 11일 팻딘을 내세워 kt 신에 주권과의 맞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벼랑 끝’ 광주 FC 사활 건다



대구 FC와 클래식 26R
리그 잔류 ‘발등의 불’

벼랑 끝에 선 광주 FC가 대구 FC와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인다.
광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17 K리그 클래식 26라운드 대구와의 홈 경기를 치른다.
발등에 ‘클래식 리그 잔류’라는 불이 떨어진 두 팀의 대결이다.
마음급한 쪽은 광주다. 광주는 올 시즌 4승 7무 13패(승점 19)에 그치면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3승 11무 11패(승점 20점)로 11위에 있고, 대구가 5승 8무 12패(승점 23)의 성적으로 10위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의 사상 첫 FA 4강 도전도 실패로 끝나면서 정규리그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광주는 지난 9일 수원 삼성과의 FA컵 8강전에서 1-2로 졌다. 광주는 조주영의 선제골로 총력전에 나선 수원을 압도했지만, 연장 혈투 끝에 1-2패가 기록되면

서 FA컵 도전은 8강에서 멈췄다.
패배의 아쉬움은 크지만 희망을 확인할 수 있던 경기였다.
광주의 유스 출신인 조주영이 나상호와의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로 득점에 성공했고, ‘이적생’ 김상원도 팀에 녹아든 모습을 보였다. 또 부상 이후 회복훈련에 집중했던 골키퍼 윤보상을 필두로 이한도, 맥킨 등이 그라운드에 복귀하며 전력 운영의 폭이 넓어졌다.
이제 FA컵 첫 4강 실패의 아쉬움을 털고 최하위 탈출을 노려야 한다.
올 시즌 대구전 성적은 1승 1무로 광주가 앞서 있다. 무승부가 기록된 경기에서도 전반에만 페널티킥으로 2골을 내렸지만 뒷심을 발휘하며 승부를 원점을 돌리기도 했다.
광주는 특유의 짧은 연계플레이로 대구전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 문제는 수비진들의 대응이다.
여기에 대구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주니오, 전현철, 프라니치, 김동우 등을 영입하면서 공-수 전력을 보강했다. 특히 앞선 서울과의 경기에서는 머리리만 두 골을 넣을 정도로 크로스와 공중볼 장악력도 좋아졌다.
광주가 홈팬들 앞에서 최하위 탈출을 위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성용 못뛰더라도 주장 역할 맡길 것”

신태용 감독, 국가대표 차출 의지 드러내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오는 14일 발표할 26명의 대표팀 명단에 부상으로 재발했다'는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성용 차출을 고집하는 이유는 기성용의 대표팀 내 '정신적 지주' 역할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이러한 점을 통해 대표팀 사령관으로 데뷔하는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 '캡틴'을 맡아온 기성용의 도움이 절실하다.
특히 기성용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돼 대표팀 합류가 예상되는 에이스 손흥민(25·토트넘)과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뽐내는 공격수 황희찬(21·잘츠부르크), 부활에 성공한 미드필더 구자철(28·아우크스부르크) 등 유럽파들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다.
신태용 감독은 오는 21일 조기소집에 참가할 국내 K리그들을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리더라도 정작 A매치에서는 유럽파들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기성용 주장'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태용 감독이 '경기에 뛰지 않는 선수를 선발했다'는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성용 차출을 고집하는 이유는 기성용의 대표팀 내 '정신적 지주' 역할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이러한 점을 통해 대표팀 사령관으로 데뷔하는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 '캡틴'을 맡아온 기성용의 도움이 절실하다.
특히 기성용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돼 대표팀 합류가 예상되는 에이스 손흥민(25·토트넘)과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뽐내는 공격수 황희찬(21·잘츠부르크), 부활에 성공한 미드필더 구자철(28·아우크스부르크) 등 유럽파들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다.
신태용 감독은 오는 21일 조기소집에 참가할 국내 K리그들을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리더라도 정작 A매치에서는 유럽파들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기성용 주장'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음바페 (왼쪽)와 호날두.

유럽 축구 ‘킵오프’

유럽 축구 빅리그가 3개월간의 휴식기를 끝내고 2017-2018 새 시즌에 본격 돌입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12일 9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가고, 독일 분데스리가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19일, 이탈리아 세리에A는 20일 개막한다. 프랑스 리그앙은 앞서 지난 5일 가장 먼저 뒀을 올렸다.
◇EPL 첼시·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2연패
EPL에서는 첼시가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2014-2015시즌 우승 이후 중위권에 그쳤던 첼시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2016-2017시즌에 EPL 역대 단일 시즌 최다 타이틀 13연승을 앞세워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첼시는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약 850억원에 공격수 알바로 모리타를 영입하며, 새 시즌에 대비했다.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전통 명가들도 우승을 향한 준비를 갖췄다.
맨시티 펠 그라디올라 감독은 EPL 진출 2년 만에 잉글랜드 축구 정복에 나선다. 그라디올라 감독은 라리가와 분데스



EPL 내일·분데스리가 19일 새 시즌 돌입...관련 포인트
첼시·레알 2연패 도전...‘제2의 앙리’ 음바페 영입 경쟁

리가를 거치면서 FC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을 정상으로 이끈 명장이지만 지난 시즌에는 3위에 그쳤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5년 만의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맨유는 지난 시즌 조제 모리뉴 감독 체제로 탈바꿈했지만, 6위밖에 하지 못했다. 1000억원 넘게 주고 데려온 로멜루 루카쿠를 필두로 ‘알렉스 퍼거슨 시절’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두 시즌 연속 막판까지 우승 경쟁을 벌였던 토트넘과 전통의 강호 아스널, 리버풀도 정상상을 노크한다.
라리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34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레알은 지난 시즌 리버풀 FC바르셀로나를 제치고 5년 만에 우승

컵을 품었다. 개러스 베일의 이적 여부가 변수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카림 벤제마 등 팀 주축은 여전히 견재하다. 네이마르를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에 ‘빼앗긴’ 라이벌 바르셀로나의 전력이 예전 같지 않아 반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분데스리가와 세리에A에서는 5연패의 바이에른 뮌헨과 6연패를 달성한 유벤투스의 ‘절대 1강’ 체제가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프랑스 리그앙은 네이마르를 영입한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컵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여름 이적시장은 진행 중...우승 향해 가른다
앞서 파리 생제르맹은 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이적료를 투입하며 네이마르를 ‘모셔오는 데’ 성공했다. 맨유도 1000억원 넘게 들여 ‘골잡이’ 로멜루 루카쿠를 영입, 공격력을 배가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킬리안 음바페(19). AS모나코를 17년 만에 우승으로 이끈 ‘제2의 앙리’를 두고 빅클럽들이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FC바르셀로나가 음바페로 네이마르의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도 몰입 작업을 하고 있다. 네이마르를 삼킨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마저 욕심을 내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베일의 이적 가능성도 점쳐진다.
맨시티는 음바페 외에 아스널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맨시티는 앞서 토트넘 첼백 수비수 카일 워커를 영입, 수비도 강화했다.
네이마르의 생제르맹 이후 이적시장은 다소 잠잠한 듯한 모습이지만 빅클럽 간 몰입 작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감까지 20여 일 남겨두고 있어 연쇄 이동의 가능성도 있다. 국내 축구팬들의 잠 못드는 주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인제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YMCA유소년야구단이 준우승 메달을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 YMCA 제공>

광주YMCA유소년야구단, 전국대회 준우승

문지우·이수호 우수선수
광주YMCA유소년야구단이 2017 하를내린 인제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YMCA유소년야구단은 최근 인제에서 끝난 대회 유소년리그(초6~중1) 결승에서 광주시태전유소년야구단에 4-6으로 지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91개 팀 1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6개 리그로 나눠 우승을 다했다.
유소년리그의 광주YMCA유소년야

구단은 인천 동구를 시작으로 예선 3경기에서 전승을 기록, 조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이어 8강에서 인제군을 9-7승으로 꺾었고, 준결승에서는 파주시를 상대로 8-7 역전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문지우, 이수호는 대회 우수선수로 선정됐다.
KIA 출신의 김민철 감독은 “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처음 참가한 전국대회에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한 선수들이 대견하다. 다음 대회에서는 우승을 목표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